

# 원유 수입단가 100달러 육박

관세청, 4월 6.23달러 상승 99.18달러 ...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유수입 단가가 배럴당 100 달러에 육박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4월 원유수입 단가는 배럴당 99.18달러로 전월대비 6.23달러 상승해 월별 기준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원유수입 단가는 2007년 11월 82.32달러로 80달러를 넘어선 후 계속 상승해 2008년 2월에는 91.96달러로 90달러 벽을 뛰어넘어 10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원유 수입단가도 상승하고 있다”며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원유 수입단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 석유제품의 전국 평균가격은 무연휘발유가 리터당 1월 1652.25원, 2월 1653.94원, 3월 1670.25원, 4월 1698.31원 등으로 상승했고 경유는 1월 1456.37원, 2월 1456.43원, 3월 1503.91원, 4월 1611.13원으로 올랐다.

실내등유 가격은 1월 112.13원에서 4월 1190.04원으로, 보일러등유는 14.48원에서 1194.09원으로 상승했다.

또 원유수입 단가 상승으로 2008년 들어 4월까지 원유 수입액은 270억17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9.0% 증가했다.

원유 수입액이 급증하면서 국내 주요 원유 수입 대상지역인 중동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도 악화되고 있다.

2008년 1-4월 중동에 대한 무역적자는 235억5100만달러로 76.1%(101억7400만달러) 늘었다. <저작권자 연합 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5/19>